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첨단과학기술이 다른 학문과 서로 융합하여 발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는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을 끊임없이 재검토해 가는 과정에 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지속적으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 필수 과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보석을 알고, 소중하게 가꾸어서 그 감동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문화융성시대 대한민국의 국격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협력하며,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열어나가는 자세를 갖추 때 높아질 수 있다. 가장

문화유산과 보존의 지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 하였다. 미래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들인 협동심과 창의성, 나눔과 배려, 소통과 화합, 자연과 인간의 조화, 평화와 생명 존중 사상은 우리 역사 속에 속속들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의 풍조와 기계 문명에만 젖어 있어 유형문화 속에 깃들여 있는 정신적 가치를 너무 많이 잊어버렸다. 바로 송례문 화재사건이 그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송례문을 물질 또는 형태로만 보았기 때문에 범인이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시대의 고귀한 숭경과 민족의 혼을 일찍이 역사교육을 통해 가르쳐 주었다면 사람을 살상하는 일 못 지않게 망설임이 있지 않았을까. 일을 저지른 나 후에 후회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 아무리 첨단과학기술, 건축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시대를 잃어버렸고 순수한 정신을 잊었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고 보존하여 다음 시대로 넘겨주는 일은 더욱더 중요하다. 지금 문화재 복원사업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고, 또한 보존에 대한 빈번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시대변화와 함께 개

발논리도 적용돼야 할 때가 있었지만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제식민지시대 일본인들은 우리 문화의 가치를 너무 잘 알아서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일부러 파괴했고, 우리는 몰라서 스스로 파괴했던 우(愚)를 범했다. 이를 거울 삼아 문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한다. 문화재에는 시대정신과 자연에 대한 소통과 존중의 정신이 배어있다는 점은 사대문 이념에 기반한 사회체제를 지향하였다. 따라서 도성에 사는 사람들과 도성을 출입하는 사람들도 유교 윤리에 바탕한 심성과 도덕성을 갖추기를 기대했다. 즉 자연의 이치인 목, 금, 화, 수, 토의 오행(五行)과 인간의 이치인 인, 의, 예, 지, 신의 오성(五性)의 상호합일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대문의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동대문의 흥인지문(興仁之門)은 나무(木)에 해당되며, 서대문은 돈의문(敦義門)으로 쇠(金)에, 남대문은 송례문(崇禮門)으로 불(火)에, 북문은 숙정문(肅靜門)으로 물(水)에 해당되며, 흥(土)에 해당하는 보신각(普信閣)이 새워져 있다. 동대문만 유독 흥인지문의 네 글자가 된

것은 동쪽의 지세가 서쪽보다 낮아 지맥을 보강하는 의미로 之자를 더 넣은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지혜는 문을 드나들면서 깨우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실천이다. 역사문화 현장을 가면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울창한 나무들이다. 몇백 년을 역사의 증인으로 지켜온 소나무, 은행나무들의 마음을 인간과 무심함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부터 문화재 관리의 왜곡이 생기는 것이다. 자연의 순리와 역사의 존엄함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역사가 주는 교훈과 지혜를 배워야 한다. 송례문이 600여 년을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서서 역사를 지켜왔는데 한 순간에 검은 솜뭉치로 변했을 때 그 자신 얼마나 놀라고 아팠겠는가도 역사사지하는 마음으로 헤아려야 한다. 정조임금 때 화성건설에서 목공대장과 노역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해 남겼듯이 이제 다시 겸허한 자세로 진정성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할 때 다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송례문 복원은 이러한 세울 때의 시대정신과 자연과 인간의 조화의 의미를 아우르면서 기술적인 면을 적용해야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社說

조선대 이사회, 대학을 파국으로 내몰건가

조선대 이사장의 독선과 전횡에 따라 또다시 파국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부가 이사회에 차기 이사진 구성을 촉구하며, 불응 시 임시이사 파견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기 때문이다. 22년 동안 분규사학으로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다 지난 2009년 말 정상화됐지만 정이사 체제 4년 만에 임시이사 회귀 우려가 커진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초 조선대 이사회에 '결원 임원 미선임에 대한 시정 요구'라는 두 번째 공문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개명이사 3명을 포함한 후임이사 8명을 선임하라면서 후임이사를 뽑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초 총동창회장을 선임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가처분결정 이후 가장 강경한 어조를 담고 있다. 따라서 오는 13일 열릴 이사회에서 후임이사 8명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 체제는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현 이사진이 임기가 만료된데다 서로 이해

관계가 얽혀 개명이사 3명을 포함한 결원이사 전원을 조속히 선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사진들이 모두 연임을 원하면서 편법과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시기사 체제가 되면 대학의 자율권이 박탈당해 교육부의 재량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전국의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자율권이 없다면 조선대의 미래는 암담해진다. 이사진들은 임기가 만료됐고, 대학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 사임없이 후임이사인 인선을 매듭지어야 한다. 아니라면 지역사회로부터 두고두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교육부도 현 이사진 구성을 주도한 만큼 새 이사진 구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이는 학교 측과 지역민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 체제는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현 이사진이 임기가 만료된데다 서로 이해

가난 탈출 해법 일하는 복지가 정답이다

가난 탈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고착화 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빈곤도 이 조사와 별반 다르지 않아 암울함을 더한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경상소득 기준 빈곤 탈출률이 2005~2006년 31.71%에서 2011~2012년 23.45%로 8%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이는 2005년 저소득층 가구 셋 중 하나가 2006년에는 살림이 나아져 중산·고소득층에 편입됐지만, 2011년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넷 중 하나 정도만 2012년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년 만에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비약적으로 된 비율은 2005~2006년 2.53%에서 2008~2009년 1.43%로 낮아졌고, 결국 2011~2012년에는 0.48%까지 추락했다. 확률 측면에서 사실상 '벼락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셈이다.

빈곤 탈출률이 떨어지고 고착화 되면 사회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다 보니 경제 활력은 크게 떨어지고,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지난 10년간 복지 지출은 계속 급증해 지난해 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만큼 복지지출이 늘었다면 최소한 빈곤 탈출이 수월해져야 한다. 그런데도 빈곤 탈출이 줄어든 것은 작금의 복지 정책이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다. 일방통행식, 퍼주기식 복지는 한계에 봉착했다.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빈곤 탈출은 더욱 고착화 될 뿐이다. 이제 그 해법을 일하는 복지에서 찾아야 할 때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강화하되 그것을 일자리의 연계시켜야 한다. 직업훈련 등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성공 열쇠가 여기에 달려 있다.

의료칼럼

특별 관리해야 할 손목과 팔꿈치



박응철 상무병원 정형외과 원장

직장 생활을 전평터에 비유해서 산업전선이라고 한다. 전평에서 부상자들이 심각한 정도에 따라 다시 전평에 나갈 수 있느냐가 결정되듯이 산업전선에서도 마찬가지다. 전평터나 직장 모두 손가락이나 손목, 팔꿈치가 다친 사람은 분명 다시 원래 자리에 보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직장에서 손목이나 팔꿈치가 아픈 것이 결근이나 조퇴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 물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왜 손목이나 팔꿈치가 아픈지를 이해한다면 적어도 피병이라는 누명이

나 이끈데도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는 비판을 서로 면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기계화되고 전산화된 요즘은 작업장에서 근골격계 통증의 양상은 과거와 조금 다른 것 같다. 예전에는 대부분 골절과 같은 외상 환자나 무릎이나 발목 같은 하지 질환 환자가 많았지만 점점 어깨, 팔꿈치, 손목과 같은 상지 환자가 늘고 있다. 정형외과 환자들은 대부분 생명을 건지장이 아니고, 심각하더라도 장애가 발생하고 마무리된다. 그래서 일부 정형외과 환자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의 분포나 추이는 사회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후진국이나 개발 도상국에서는 고관절 환자나 심한 척추 질환 환자, 교통 사고 환자가 대부분이며,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무릎 통증을이나 허리 통증 환자가 늘어난다. 걸을 수 있는나의 문제에서 통증이 있는나의 문제로 변하는 것으로, 삶이나 노명의 질에 관심을 둘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 후 여

유가 더 생기면 자동차 사용과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인해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척추관 협착증의 발생이 줄어든다. 또,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50~60대가 되더라도 생산 활동을 지속하기 때문에 어깨나 팔꿈치, 손목 환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 요즘 우리나라도 어느덧 미국, 유럽, 일본처럼 어깨 환자나 팔꿈치 환자가 늘고 있다. 허리가 다리가 아프면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게 된다. 하지만 어깨, 팔꿈치, 손목, 손과 같은 팔의 문제는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일어나 운동을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손이나 팔의 문제는 일을 안 하면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굳이 적극적인 치료나 필요 없다는 뜻이다. 최근 20~30대에서는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의 증가와 컴퓨터 사용의 증가가 원인이다. 손목 질환은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작은 외상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흔히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공을 막다가 뒤로 꺾이고 나서, 하루 이

틀 불편하다가 좋아져서 그냥 생활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손상이 반복되거나 손목에 부담이 되는 직업에 종사한다면 이러한 작은 손상도 천천히 악화되다가 어느 날 손목을 못 쓸 정도로 삼해질 수 있다. 반복된 손상이나 직업 이외에도 근육 운동이나 야구와 같은 취미들은 손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 개인이 평생 해야할 일의 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오래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직업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손목과 팔꿈치의 건강은 중요해진다.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40~50대,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20~30대, 그리고 60대 환자들은 스스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남들에게 이간다고 말하기 부끄러워 혼자 속으로 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일을 하고 손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직장을 위해 다 써버릴 팔꿈치나 손목이 아니라면, 인생 이모작을 대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이다.

기고

지역주민 건강 챙기는 ‘프라이머리 케어’



박영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주민의 건강을 정성껏 관리해 주는 ‘1차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차 의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예방 중심적 의료 행위로, ‘프라이머리 케어(primary care)’라고도 부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차 의료에 대해 ‘건강 개선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지역 수준에서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방과 건강 증진, 치료, 사회복귀, 지역 개발활동 등을 포함하는 종합의료의 기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1차 의료를 가장 철저히 시행하는 국가는 쿠바로, 열악한 경제 구조에도 불구하고 지역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1차 의료 시스템인 ‘패밀리닥터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중이다. 패밀리닥터로 지정된 의사는 간호사와 협력을 이뤄 지역내에 거주하며 24시간 왕진시스템을 갖추고 평균적으로 120세대를 돌보고 있다. 또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1년에 2번 정도 각 가정을 방문하는 등 지역민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를 초기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시범지역 주민은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문 상담서비스와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정부의 이번 1차 의료 확대 정책은 대형 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 치료 지연 등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의료법인을 통한 의료 투자 활성화 및 시범 원격진료 허용 등으로 지역 내 중소병원 및 동네의원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정부의 1차 의료 정책 확대에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광주시가 정부보다 앞서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다양한 1차 의료 시스템인 타 시·도는 물론 중앙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첫 도입한 ‘경로당담당 주치의 제도’는 경로당 주변 동네 의료기관에서 연 4회 이상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의 건강 상담과 진료는 물론 마음 건강까지 살펴주는 제도로, 현재 광주지역 399개 동네의원에서 514개 경로당을 돌보고 있다. 광주시는 또 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예방 접종 업무를 동네의원 중심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무료 독감예방주사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지정된 특정 장소에서 특정일에만

접종이 가능하지만, 광주에 주소지를 둔 75세 이상은 올해부터 자신이 원하는 동네의원에서 원하는 날 독감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도 지난해부터 보건소 중심에서 동네의원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접종비(1회 5000원)도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 시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동네치과원에서 무료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치과건강주치의제도 올해 시행한다. ‘인권도시’ 광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중인 경로당담당주치의제 등 다양한 1차 의료 정책이 지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지역사회 소통문화를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의 제기를 할 이는 없을 것이다. 실제 이 같은 노력으로 광주는 3년 연속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의 건강도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권 도시 광주’라는 명성에 걸맞게 새로운 1차 의료 서비스를 추가로 발굴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

無 等 鼓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유지환(1908~1967)의 시 ‘행복’은 언제 읽어도 가슴이 저러온다. 그것은 예타는 짝사랑의 연가(戀歌)이기 때문이다. 살면서 누군가를 남몰래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이 이 시에 공감하는 것일 게다. 시인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느니라’라고 노래했다. 그 멋진 시구(詩句)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행복했던 것일까. 아

정마(靑馬)

유치환은 말상(馬相)으로 유명한 가수 이문세처럼 얼굴이 길었나 보다. 그래서 도쿄 유학시절 허물없이 지내던 영문학자 정인섭(1905~1983)이 처음 ‘마면(馬面)이란 별명을 붙여주었다 한다. 이후 시인 홍사옹(1900~1947)이 “자네가 마면이니 청마(靑馬)라 함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굳어졌다는 이야기다. 그는 그렇고, 올해는 경남 통영에 꼭 한 번 가봐야겠다. 청마 유치환이 아름다운 그녀와 처음 인연을 맺었던 곳이다. /이희재 논설교

육설은 심각한 범죄...배려·존중하는 언어 사용을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다. 한 두 잔의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술기가 달아올라 이성은 달아나고, 취중의 껌군이 남야 고성이 앞서고 뒤이어 육두문자가 난무한다. 이것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육설이다. 술기운에 상대방과 시비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분이 육설 때문이다. 이렇듯 아무 때나 내뱉는 육설은 폭력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표면적으로 술이 원인인 듯 하지만 시비와 폭력의 주원인은 육설이다. 폭력사건 경우 상당수는 육설로 인해 싸움의 발단이 된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에서 피해유형별 중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다. 한국교육 2013년 조사에서도 학생들의 육설문화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교사의 57%는 학생들의 육설과 비속어를 매일 들

고 있고, 10명 가운데 8명은 학생들의 육설 상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생활에서도 육설은 치명적이다. 맑은 입에서 나온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옛 선현들은 이를 경계하라고 했다. 육설은 상대방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범죄라 할 수 있다. 하여 육설은 심각한 범죄성임을 깨달아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존중사회의 변화는 먼저 나부터 육설이 아닌 배려와 이웃을 사랑하는 열린 마음으

로 희망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좋은 사회, 존중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사회적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 공동체는 사회적 자본이고 희망이다. 맑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담아내는 그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희망의 언어 사용으로 서로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가시 돌친 말보다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기 바래. **▲이영재·광주시 동구 앙림로**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 화 1부 2200-661 문 화 2부 2200-651 여론대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본부 2200-515 <F A X 222-8005> 광고이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지 인 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